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사도행전 22:16)

다음 주일(24일) 찬양예배 시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감사의 삶

감 사 (시편 103:1~5)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1절)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왕좌에 앉게 되었고, 양떼들과 바깥에서 지내다가 왕궁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업적이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2절) 그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모든 은택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큰 은택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담겨 있는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은총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에 비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돈이나 권력, 명예, 학업이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은 부활의 능력이며, 놀라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자신이 받은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3절) 이 은택이야말로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그 사신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는 자는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한 신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에 비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출 15:26)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 4:46~54,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롬 6:4)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며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갓 나온 사람에게는 절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세례 대상자만 14세 이상에게 일정 기간의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세례 교육을 이수했다 고 해서 무조건 세례를 주지는 않고, 당회(목사 및 장로로 구성)에서의 세례 문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정이 철저한 이유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

우리 교회에서는 짝수 달 넷째 주일 찬양예배 시에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짝수 달 둘째·셋째 주일에 있으며 교육 후에 문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은 교회에 등록 후 6개월 출석하신 만 14세 이상인 분들이 받습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뒤에 받습니다.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만 2세가 되기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입교하여 세례 교인이 됩니다. ‘개종’은 천주교회에서 세례(영세)를 받으신 분에 한하여 역시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세례 교인이 됩니다. 오직 세례 교인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표(벧전 3:21)인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속히 받도록 준비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5:1~9, 9:1~41)

인자와 공화로 관을 씌우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화로 관을 씌우시며”(4절) 이러한 은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 3:16)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5절) 주님은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만약 주님만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 모든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의 손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못 바친 손으로 여러분 앞에 영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주님은 사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은 금이나 보물보다 바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택을 입게 되었는지 바라보십시오.

오직 감사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할 때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자녀들이여! 약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이 모두 치러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WHAT IS OF MOST IMPORTANCE IN THIS WORLD?

⁽³⁴⁾And He summoned the crowd with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³⁵⁾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³⁶⁾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³⁷⁾F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Mark 8:34-37)

The most important part of us all is invisible. Our eyes cannot see the real beauty and treasure of human existence. Nonetheless,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spend countless time and money on their personal appearance. Great attention is given to hair, nails, eyes, clothes, shoes, jewelry, make-up, and body shape. People like to make a good appearance. As such, much energy is given to glorifying the temporary house in which we live. After a young rich man walked away from Jesus' call to follow Him, Jesus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will be for those who are wealth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His words. But Jesus answered again and said to them, "Children,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Mk. 10:23-25) Jesus called attention to the human soul.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considered the value of your soul? How much do you really care about the soul of others? Mark 10:45 says,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Jesus Christ is proof of the worth of the soul.

After summoning the crowd with His disciples, Jesus said to them,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vv. 34-35) After giving them the mystery to heaven, He asked them a key question,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v. 36) The quest for riches, power, and success is vain. All these will perish in a short time. Ecclesiastes 1:2 tells us,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and further on verse 14 says, "I have seen all the works which have been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striving after wind." Do you agree with these Bible verses? Does Ecclesiastes 2:11, "Thus I considered all my activities which my hands had done and the labor which I had exerted, and behold all was vanity and striving after wind and there was no profit under the sun, "make sense to you? Wisdom calls you to take care of your soul, "then the dust will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will return to God who gave it.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all is vanity!'" (Eccl. 12:7-8) You need to seriously think about your soul. There is not only no profit in gaining the world and losing your soul, but a huge consequence of eternal death in hell.

The cost of the cross is immeasurable! If you ever wonder during times of extreme stress and difficulties whether or not God really and truly loves you, then just think about the cross. Christ endured the cross to save sinful souls. Isaiah 53:5-6 say,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He died for you. He paid the price that you could not.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e gospel writers describe the agony of the cross in great detail. Jesus denied Himself on the cross.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suffered for our iniquities. Even the thief on the cross faced the value of his soul,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Lk. 23:42) Jesus responde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During the thief's final moments he became honest about eternity. Have you been honest about your soul?

All people face two worlds. One is filled with time and the other is timeless. One has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the other is eternity. One is now and the other is forever. One is ending and the other endless. These worlds are contradictory. You are familiar with this world, the world of time, and your knowledge, judgments, and values can easily gravitate toward it, but the other world is where your mind and spirit should constantly focus. If you spend time thinking about your soul, your thoughts will result in eternity. If you spend time thinking about this life, your thoughts will end at the finish line. Which world do you choose? James 1:11 says, "For the sun rises with a scorching wind and withers the grass; and its flower falls off and the beauty of its appearance is destroyed; so too the rich man in the midst of his pursuits will fade away." Do you really want to expend your precious energies and constantly busy yourself for things in this daily life? James 4:14 reminds us, "Yet you do not know what your life will be like tomorrow. You are just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away."

My dear friend, you wake up to two worlds every day. One man woke up and said to his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Lk. 12:19) God said to this man,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Lk. 12:20) Consider the rich man and Lazarus, "And he cried out and sai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so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off my tongue, for I am in agony in this flame.'" (Lk. 16:24) Abraham replied,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persuaded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Lk. 16:31) Life on earth is very, very, very short. Your destiny after this life is eternal. There is a heaven and there is a hell. Both are forever. Please think about your soul!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I want you to busy yourself thinking about the soul, and not get trapped in the pride and bustle of this world. The world of God should always be top priority. 

다들 주일 설교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가?

- ⁽³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³⁵⁾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³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³⁷⁾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34~37)



김성원 목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 데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머리, 손톱, 눈, 옷, 신발, 보석, 화장, 몸매 가꾸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가 돋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집을 꾸미는 데도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좇지 않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막 10:23~25)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까?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45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지에 대해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4~35절) 제자들에게 천국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6절) 부, 권력, 성공을 좇는 것은 헛된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전도서 1:2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1:14)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 2:11)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젊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7~8)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리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은 끔찍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십자가의 가치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시로 밀려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구심이 생긴다면 그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사가 53:5~6은 말합니다. “그가 절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영 갇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의 기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눅 23:42)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강도는 마지막 순간 영원 앞에서 정직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실로 정직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 세계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 세계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다른 세계는 영원합니다. 한 세계는 현재만 있지만, 다른 세계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 세계는 끝나고 있지만 다른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모순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곧 시간의 제약 받는 세계에 친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 가치들은 쉽게 이 세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영원의 세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면 영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결과는 비참한 종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11은 말합니다. “해가 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은 잠시도 쉴 생각이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에 쫓기면서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14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 두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눅 12:19)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눅 12:20)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허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눅 16:24)라는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눅 16:31)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혼에 관한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존심으로 가득찬 혼란한 이 세상이라는 탓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

성경이 답이다

지옥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
에 '적당함 중건'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오직 천당과 지옥뿐이다.(계 20:1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형벌에 붙여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대체로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는 인간들은 즉, 모든 인간들은 간들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보

편 원론자들의 주된 견해다.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는 죄를 지은 자들, 반역하는 자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옥을 가리켜 '영원한 형벌'이라고 설명한다.(마 25:46) 벌레조차도 죽지 않으며 불이 소멸되지 않는 곳이라고도 언급한다.(막 9:48) 그곳에 가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마 25:30) 또한, 지옥에 대해 '영원한 불'이라고 설명한다. 그곳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마 25:41)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 지옥을 수치시킨 자들이 가는 곳 즉, 영원히 에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설명한다.(유 1:13 ; 마 8:12)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감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신다.(마 8:11) 바울 역시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살후 1:8~9) 지옥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악이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을 영원토록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신 29:29) 하나님께서 악을 그의 계획 안에 포함시켰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창조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하는 피조물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계 5:13)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을 가져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가장 좋은 계획이 사악하고 반역하는 피조물들을 파멸로부터 구속하여 내릴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인들을 완전한 형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죄

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 없으며 또한 구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체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없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보여 준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모두 참된 것이며 죄악에 대해 해결 못 할(이해 못 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것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빌 2:6~11) 누구에게나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제는 지옥에 빠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부를 수 없고 천국에서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계 21:4)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대가를 모두 아셨고 또 지불하신 것이다.(계 4:11)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계 5:9~10) 하나님의 계획이시다.(계 5:13)

악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에 대하여 자신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악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좇아 행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갈 5:16)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베후 3:18) 개인적인 고통과 질병, 죽음에 관한 일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목격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이다. 환경에 답답하게 처하자.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자.(벧전 2:20~21) 또 고통이 을 것도 기대하여야 한다.(벧전 4:13~14) 고통은 잠시뿐이요, 영원한 것은 아니다.(롬 8:18)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부패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통을 당하신 최고의 본이시다. 그가 어떻게 이를 대하였는지 기억하자.(벧전 2:22~23)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장년1부



이태석(장로, 장년1부장)

집회 시작 전에 50여 명의 교사들은 오전 10시 10분에 교사실에 모여 찬양과 지도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어 집회 시작 15분 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12시 30분에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후 1시 20분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신임회원 환영과 등반축하 및 변별전교와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면 1시 30분에 집회가 모두 끝납니다.

장년1부는 40대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장애가 되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40대 성도님들은 각 부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주님의 뜻에 맡기지 못하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골 12:2)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어떠한 일도 거치는 것이 없이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총회의 40대 성도님들은 누구나 장년1부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어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함께 걸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년1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장년1부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장년1부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팀이 가게 될 선교지가 B국이라는 말을 듣고 내심 좋아했다. 나는 처음이지만 이미 다른 팀원들은 한두 번씩은 다녀와서 현지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영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에 기대도 되고 잘해 보리라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 첫날,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외진 곳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 학생들은 전도지를 잘 따라 읽었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열십 마당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며 무려라 말을 하는데 분위기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크게 외치고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이 벌어졌다. 한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다쳐 책자를 빼앗았다. 순간 전도지를 감추기도 하였으나 열십에 계시던 권사님과 집사님도 전도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민국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일요일까지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속소로 돌아와서 팀장님과 함께 기도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었다. 하지만 기도를 거듭할수록 내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선교준비 기간에도 버려지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고, 형식에 매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팀원들에게 미안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다시 이민국에 갔을 때 모든 상황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예정되었던 날에 출국하게 된 것이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민국 사람들을 향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들 스스로 조국조국 전도지를 읽고 확인하면서, 복음을 마음에 새겼으리라 믿는다. 이와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민국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나!

우리의 선교는 다시 시작되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다. 간혹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 열십 기도 중에는 내 등을 치며서 “가라!”고 호통치는 할아버지도 계셨지만 대부분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나는 믿는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십자가가 우뚝 설 것임을.

윤일자(집사, 2교구 8지역)

내려놓음

선교 출발 전에 들었던 인간의 모든 계획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사역 초반부터 느끼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선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뻔했고, 숙소와 차량문제 등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자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하셨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야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담담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연히 알게 되어 우리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한 소녀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였다. 바쁘게 일하던 중에 우리를 찾아와 같이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드렸던 한 남자는 우리를 인도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또 고아원을 방문하여 그곳의 순수한 영혼들과 함께 손잡고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미련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써 사용하여 주님에도 감사하다. 게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하시니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기적과 같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땅에 맑고 순수한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규인(집사, 23교구 1지역)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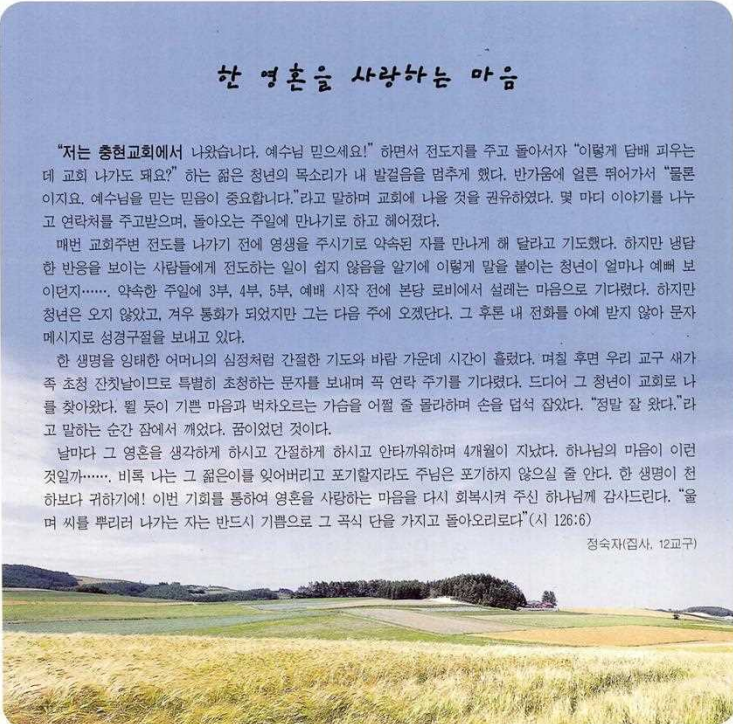
기 간	팀	팀 장
8월 19일(월)~8월 27일(일)	12교구 4지역	이인용
8월 20일(수)~8월 28일(목)	대학부 9팀	지규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1일(월)~8월 18일(월)	4교구 6지역	김영모
8월 11일(월)~8월 19일(월)	13교구 6지역	오동혁
8월 12일(화)~8월 20일(수)	23교구 6지역	한충원
8월 14일(목)~8월 21일(목)	에비다부 1팀	변창대
8월 14일(목)~8월 21일(목)	에비다부 2팀	윤영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7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4일(월)~8월 13일(수)	임야누엘친당대 1팀	이현진
8월 5일(화)~8월 13일(수)	9교구 3지역	이정훈
8월 5일(화)~8월 13일(수)	4교구 1지역	박남주
8월 5일(화)~8월 13일(수)	20교구 7지역	박종율
8월 5일(화)~8월 13일(수)	22교구 3지역	김성수
8월 6일(수)~8월 14일(목)	2교구 1지역	최세진
8월 7일(목)~8월 14일(목)	2교구 7지역	허만선
8월 7일(목)~8월 15일(금)	15교구 7지역	유종석
8월 7일(목)~8월 15일(금)	23교구 2지역	유재훈
8월 7일(목)~8월 15일(금)	23교구 7지역	문건안
8월 8일(금)~8월 15일(금)	4교구 4지역	김윤환
8월 8일(금)~8월 15일(금)	6교구 5지역	최용길
8월 8일(금)~8월 16일(토)	3교구 2지역	안준모
8월 9일(토)~8월 16일(토)	17교구 2지역	김영록
8월 11일(월)~8월 16일(토)	충동2부 3팀	정진근
8월 11일(월)~8월 16일(토)	15교구 3지역	이홍기
8월 11일(월)~8월 16일(토)	15교구 6지역	최민석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충청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돌아서자 “이렇게 담배 피우는 데 교회 나가요 돼요?” 하는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반가움에 일른 뛰어가서 “물론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합니다.”라고 말하며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였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돌아오는 주일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매번 교회주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이렇게 말을 붙이는 청년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약속한 주일에 3부, 4부, 5부, 예배 시작 전에 본당 로비에서 실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청년은 오지 않았고, 겨우 통화가 되었지만 그는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 후론 내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로 성경구절을 보내고 있다.

한 생명을 위해낸 어머니의 심정처럼 간절한 기도와 비람 가운데 시 간이 흘렀다. 며칠 후엔 우리 교구 새가족 초청 잔치날이므로 특별히 초청하는 문자를 보내며 꼭 연락 주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 청년이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뭇 듯이 기쁜 마음과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쩔 줄 몰라하며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잘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잡에서 깨었다. 꿈이었던 것이다.

날마다 그 영혼을 생각하게 하고도 간절하게 하시고 안타까워하며 4개월이 지났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비록 나는 그 젊은이를 찾아보고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 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올려썬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 126:6)

정숙자(집사, 12교구)

복음의 천국일꾼! 그리스도 교회의 부흥일꾼!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

지난 주 남편은 민재와 아주 특별한 약속을 했다. 다름 아닌 민재의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에 같이 가는 것이다. 남이 보면 별 약속 아닌 듯 싶었지만 직장관계로 매번 주일을 지키지 못 하는 남편으로서 큰 약속이었다. 또 이번 성경학교와 민재의 할아빠도 같이 가기로 했다. 그래서 학교가 벌써부터 민재와 나는 가슴이 설렌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성경학교가 열렸다. 아침부터 민재는 말이 났다. 찬양과 물음도 흥내 내고 기도 시간엔 재빨리 손도 모른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다. 아직은 어린 듯 아무것도 모를 거란 내 생각이 틀렸음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어쩌면 이번 성경학교는 주님께서 남편과 나를 부르셨던 건 아닐까? 그뿐만이 아니다. 영아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또한 점점 뜨거워지게 하신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에서 공연한 인형극(회개)은 민재보다도 내게 더 깨달음을 주었다. ‘나의 믿음생활은 어떠한가? 정말로 내가 참 회개와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있는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벅차오르는 기쁨도 느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경쾌해졌다. 그것은 아마도 민재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 것을 먼저 배우고 믿길 바라는 나의 소망을 주님께서 친히 아람답게 열매 맺어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인 듯하다.

이정숙(순민재 아기의 엄마, 영아부)

주님과 의 소중한 만남

솔직히 수련회에서 늘 생각만 했지 다른 생각과 준비는 전혀하지 않았습다. 그렇게 지나다가 수련회 바로 전날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엉망이어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든 회화를 다시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다.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엄마가 “수련회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나는 교회로 가는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막상 기도원에 와서도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것과 물놀이를 한다는 것에만 들떠 있었습다. 그러나 부흥회 시간이 되자 말씀이 저를 찔렀습다. 꼭 하나님께 말씀 통해서 저의 죄를 알려주시는 것만 같습다.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날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다. 엄마 애기부터 친구들까지, 제가 지었던 죄를 다 아시는 게 같아 솔직히 무서웠습다.

처음 교회에 나와 수련회에 가서 부흥회 시간에 내가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 그날과 같은 부흥회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것이 그동안은 참피하게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은혜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의 사랑을 항상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임인선(중동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늦게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아 키우다 보니 영아부 때의 저의 절반을 걸작하였다. 그러다 작년부터 큰아이가 유아부에 지속적으로 나가기 되었다. 이후 지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엄마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다음으로 엄마를 사랑해요.” 하는 게 아닌가. 22개월 때 동생을 보게 되어 항상 엄마의 사랑을 갈급해 하는 지현이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를 입에 달고 살던 아이였다. 그러던 지현이가 갑자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하길래 의아했다. “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지현이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다. 4~5세 무렵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이 깊게 시작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아이 둘 키운다는 핑계로 교회봉사를 중지 벌써 5년째였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유아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유아부 부장장모님께서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금식기도를 선포하셨다. “이 무더운 여름날 기운도 없는데 금식이라!” 한 까만 못 먹어도 눈앞이 캄캄한 나로서는 큰일이었다. 그러나 평소 기도에도 게을렀던 나에게 금식기간은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휴가를 받은 남편과 서둘러 온 가족이 준비를 하고, 과원에서 친구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 약했던 아무리 빨리 서둘러다 11시였는데, 교사의 작분을 맡게 되니 마음부터 달랐다. ‘아이들이 너무 작게 온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혼자서는 못 오는데 엄마들이 모두 휴가를 떠났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지구 주변을 돌아보며 수를 어렵게 땀 뻘 땀. 하지만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우리 과에서 마련한 성극에서도 보았듯이 세상사에 바빠 잔치에 초청받지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천국은 천도하는 자의 것이라.....,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도 감사할 뿐이다. 전도사의 설교 때 “교회는 어떤 곳이지?”라는 물음에 “기도하는 곳이지.” “예배하는 곳이지.” “찬양하는 곳이지.”라고 대답하는 사랑스런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는 교사가 되고 싶다.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천국일꾼으로 자라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어 오늘도 기도한다.

정이숙(사도, 유아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부흥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말씀과 기도도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 보잘것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짐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나 개인과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명민(소년부)

내 모습 그대로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다. 친구 전도, 공부, 조장이라는 부담 등 많은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수련회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솔직히 요즘 믿음의 많이 없어져서 정말 고민도 많았는데 첫날 부흥회 때, “아무 주일이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주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항상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넘어지나 아무도 알려지지 않아하는 여호와에게 그의 손으로 불드심이라”(시 37:24)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

또한 내가 조장을 맡게 되면서 정말 고민한 마음부성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다. 솔직히 성극대본도 맡을 위주로 짜지 않고 오직 재미만을 생각했고, 나에게 맡겨진 조를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말 너무 죄송했고, 또 한편으로는 깨닫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정말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지는 않는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전 10:13)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한다.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뿐이다!

김우진(고동부)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류예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예요. 친구들께 편지 쓰고 있어요. 저번 주 화요일 날 여름성경학교 할 때 재미있었어요. 게임도 하고 인형극도 했어요. 하나님도 뛰어주고 복음의 발표도 만들었어요. 근데 팔찌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건데 아직 못 주어서 제가 기졌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춤과 찬양도 배웠어요. 진짜 진짜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대신 빨리 오세요. 저는 이제 책 읽고 자야 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유지부 이지유 올림

신자가의 길

복음을 위한 에너지절약



야 한다. 우리의 작은 절약실천이 복음전에도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복음전파에 전심 전력하고 있다. 국내전도는 물론이거니와 최근 1~2주 사이에 57여 개 팀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열방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고 돌아왔으며 현재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열매이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불평 없이 참아 주신 결실로 현재 교회는 작년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 이것은 곧 복음전파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성도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계속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절연·절수에 힘써 주시고, 교회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카를을 이용하길 바란다. 최근 교회는 선교관 옥상에 태양열발전 온수시스템 설비를 마쳤다. 이제는 온수사용을 위한 물도의 비용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자동 절수기, 절전 조명기구, 자동 전원차단 설비를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절약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모든 성도님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한 에너지절약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선교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발전 온수시스템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한 나의 삶

찬양 부르는 것이 좋아서 일평생 찬양대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온성을 바라보며 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든 예루살렘 찬양대원을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감사하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마음이 절실하고 감사한 적이 없었던 만, 그런데 이제 나의 삶에는 감사가 넘친다.

76세가 되도록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찬양대를 만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처음에는 “늙은 사람들이 모여 무슨 찬양대를 만드느냐?”고 부정적인 입장들도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예루살렘 찬양대가 있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곡을 외워서 부르는 동안 깨닫지 못했던 찬송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은혜가 되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허리가 굽고 다리도 아파서 걸음은 시원치 않으나 가사를 외는 동안은 은혜로 충만했다.

금요찬양집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말씀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감사하다. 부부가 함께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져 감사하다. 금요찬양 때마다 온 교회가 〈할렐루야〉와 〈주의 영광〉을 부르며 메시아를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이며 자랑스럽다.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시온성, 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현영숙(은퇴사신, 예루살렘 찬양대)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배울 때처럼 저는 기본이 깨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지들해지면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은 올해, 정말 잊을 수 없는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자식들에게 늘 헌신만 하시던 어머니가 일말의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환하신 것입니다.

그 뒤,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주시는 이 큰 시련의 의미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서 예수님을 열정하게 해달라고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아가 강해 어머니의 부탁에도 꺾이지 않았던 저희들이었기에 주님은 가장 소중한 여기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동안 한번도 읽어 보지 않았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있던 오만한 마음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선(성도, 새가족양육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02	김현란	25	예바다부	이수정(25)
1603	박준규	14	장년1부	이상록(14)
1604	오동진	17	장년3부	오종학(17)
1605	이미정	3	청년1부	
1606	송윤석	2	대학부	한만교(24)
1607	이두원	2	대학부	한만교(24)
1608	임해용	3	청년2부	
1609	김민국	1	청년1부	
1610	홍영숙	13	장년2부	황정희(13)

* 중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